

## “다양한 만남, 뜻깊은 봉사로 우리는 더욱 성숙해졌다”

진행 · 글 **양인실** 작가 / 사진 **송은지**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의 친필 붓글씨 앞에 모인 정답회 임원들. 왼쪽부터 안상범, 전자영, 김대근, 이윤하, 정다예, 김태환 학생.



2015년 정담회 임원들. 왼쪽부터 김대근 회장 겸 편집부장, 이윤하 부회장, 김태환 운영부장(왼쪽 사진). 2016년 정담회를 이끌어갈 신입 임원들. 왼쪽부터 정다예 총무부장, 전자영 부회장, 안상범 회장(오른쪽 사진).

지난 1월 중순, 아산장학생들의 모임인 ‘정담회’ 선후배 임원들이 아산재단 회의실에 모였다. 2015년 한 해 동안 정담회를 이끈 제38기 임원진과 올해 새로 선발된 제39기 임원진이다. 1년 동안의 정담회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선배의 이야기를 후배들은 경청했다. 2016년 정담회 활동계획과 각오를 밝히는 신규 임원진에게 선배들은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간담회에는 2015년 임원 중에서 김대근(25 · 동명대 금융회계학과 졸업) 회장 겸 편집부장, 이윤하(21 · 동덕여대 경영학과 4) 부회장, 김태환(26 · 삼육대 카메카트로닉스 졸업) 운영부장이 참석했다. 2016년 임원으로는 안상범(24 · 단국대 토목공학과 4) 회장, 전자영(22 · 성신여대 사회복지학4) 부회장, 정다예(21 · 동국대 경영학과3) 총무부장이 함께했다.

#### 진행: 2015년 정담회 활동을 통해 느낀 보람이나 기억에 남는 일은?

**김대근:** 작년 메르스 사태로 매년 개최하던 ‘만남의 장’과 ‘농촌봉사활동’이 취소됐다. 그때 임원진이 모여 다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기획회의 끝에 ‘한양도성 걷기’를 진행했다. 걸었던 거리만큼 기금을 모으는 취지의 행사였는데 이틀간 전국에서 아산장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때 모은 기금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기부했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이윤하:** 한양도성 걷기, 정동진 기차여행 등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많은 인원을 이끈 적이 처음이었는데 그때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정담회는 단순한 장학생들의 모임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다양한 만남과 뜻깊은 봉사도 더 성숙해지라는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그걸 깨닫는 여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김태환:** 정담회 활동은 물론 윤중로 벚꽃축제와 영화모임 등 행사를 통해 다양한 사람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인맥을 쌓았던 게 좋았다. 임원진으로서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를 이끌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소중한 인생 공부라 됐다.

#### 진행: 새롭게 출발하는 2016년 임원진의 각오는?

**안상범:** 제38기에 이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많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개인적으로는 회장이라는 책임감과 더불어 즐기는 마음으로 재미있게 활동하고 싶다.

**전자영:** 만남의 장과 봉사활동 외에 도성 걷기처럼 이색적이면서 의미 있는 행사도 진행하고 싶다. 일 년 남은 대학생활과 정담회 임원 활동 모두 성공적으로 치르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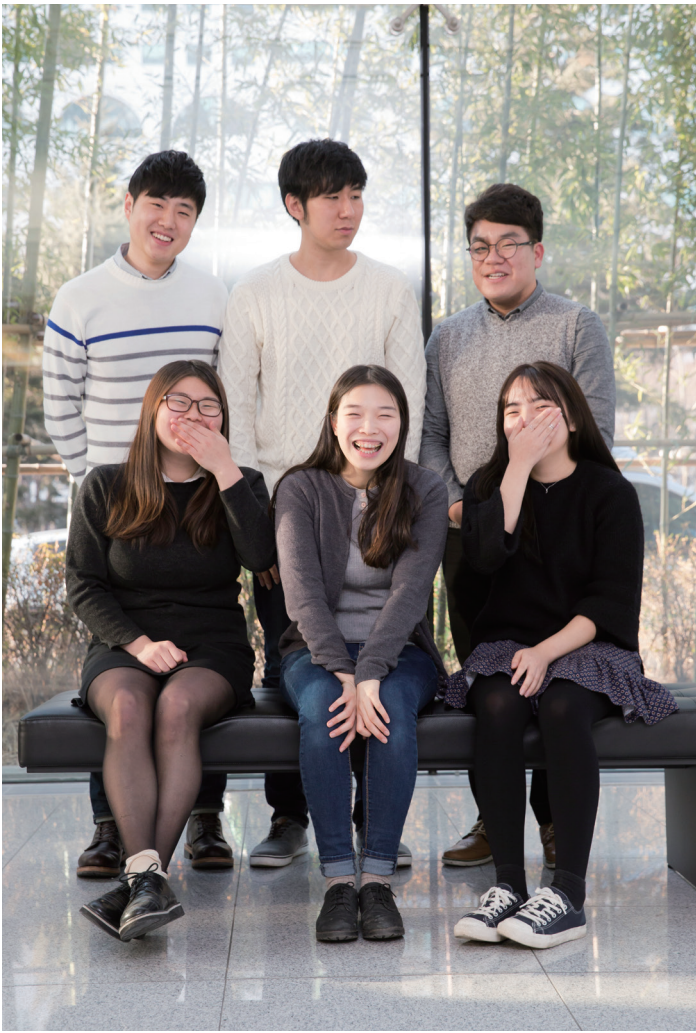
**정다예:** 처음 아산장학생이 됐을 때는 정담회 일원으로 참여하면 되겠지 싶었다. 임원이 되고 나서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며 늘 자신을 채찍질한다.

#### 진행: 정담회 활동에 관해 궁금한 점과 알려줄 말이 있다면?

**전자영:** 앞으로 수백 명의 새로운 사람을 만날 텐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이윤하:** 정담회 활동에서 배운 게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관계 맺는 법이다. 먼저 가서 인사하고 말을 걸면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이건 일이건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떤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안상범:** 행사 지역이나 참여 장학생들이 거의 서울 위주다. 행사를 지방에서 열거나 지방 학생의 참여를 유도할 방법이 없을까?



선후배 임원진은 서로 격려와 덕담을 나누며 우정을 쌓았다.

**김대근:** 나도 집이 부산이라 그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정담회에서도 지방 학생의 참여를 이끌 방안에 대해 오래 전부터 고민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거나 정담회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지역별로 대표 학생을 선출하고 그 지역을 아우르는 봉사활동을 펼치게 하는 등의 시도도 해봤지만 아직 어려운 점이 많다. 내 경우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임원진이 됐는데, 이렇게 임원 활동을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 같다.

**김태환:** 대여섯 명의 지방 학생이 서울에 올 때는 숙박 제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인원이 늘면 숙박이나 부대비용 제공이 쉽지 않다. 정담회는 모든 활동을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자치기구로서 제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하기 때문이다. 신규 임원진도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해서 좋은 해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다.

**진행:** 아산장학생들은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를 퍼트리는 데 일조한다. 각각 어떤 봉사를 했는지.

**김태환:** 전공 분야인 수학을 학생들에게 가르친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우리 장학생들이 봉사대상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재다능한 장학생들이 봉사할 곳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김대근:** 아산장학생이 되기 전부터 봉사활동을 해왔다. 한부모와 다자녀 가정 등의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제는 선생님보다 친한 형으로 통한다. 내성적이던 아이가 어느 날 내게 먼저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친화력과 인내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다.

**이윤하:** 정담회를 통해 비로소 봉사를 알게 됐다. 처음에는 봉사활동이 낯설고 어색해 의무감으로만 대했다. 그러다가 보육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함께 놀면서 ‘나누면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봉사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것도 배웠다.

**정다예:**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을 가르친다. 학교신문 기지일 때 아이들을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는데 한 아이가 내게 와서 앞으로 영화감독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그 아이 꿈의 텃밭이 돼줬구나 싶어 뿌듯했다.

**전자영:**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음악과 미술, 수학, 요리 등을 가르친다. 하루는 장애아동시설에서 가르치던 아이가 내게 초콜릿을 주었다. 3년간 봐왔지만 그 아이가 누구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은 처음이었다.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안상범:** 보육원에서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고 온 적이 있다. 앞으로 정담회 활동을 통해 긍정 에너지를 더 많이 받을 것 같아 기대된다.

**진행:** 아산장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때는.

**김대근:** 학교 게시판을 보고 장학생 신청을 했지만 처음에는 소속감이 없었다. 선후배가 모인 간담회에서 소속감과 긍지를 느꼈고 자발적으로 정담회 임원이 됐다.



‘청년 아산’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정담회 신규 임원진.

**이윤하:** 다른 곳의 장학회처럼 장학금만 받고 끝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었다. 정담회 일원으로서 갖는 자부심도 크지만, 더 자랑스러운 것은 내가 받은 도움을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이다.

**김태환:** 무얼 하든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학교와 집만 다니던 쳇바퀴 생활에서 벗어나 많은 사람과 세상을 접하게 됐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일이 두려웠는데 이제는 누구를 만나도 당당하고 자신 있게 대한다.

**정다예:** 아산장학생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지금도 너무 신기하다. 평범한 사람으로 여겼던 내게 정담회는 ‘너는 특별해’라고 말해준다. 정담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전자영:** 2015년에 재능나눔장학생으로 선발됐다. 재능나눔장학생에게는 아이들과의 문화활동비, 간식비 등으로 아산재단에서 활동비가 나온다. 이 활동비로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외투와 내복을 선물한 적이 있다. 아이들에게 “이건 아산재단에서 주는 선물이야” 말할 때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안상범:** 봉사활동 할 때 친구들을 불러 함께 간다. 함께하면 더 신나고 즐거우며, 친구들도 봉사를 체험하면서 그 의미를 새기게 돼 흐뭇하다.

#### 진행: 앞으로 계획이나 인생 목표는?

**이윤하:** 정담회 활동을 통해 후원자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다. 당장은 취업을 고민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누군가의 후원자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겠다. 단 한 명에게라도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김대근:** 정담회 임원을 하면서 함께하며 나누는 일이 적성에 맞다는 것을 알았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연결하는

가고, 소통의 창구가 되고 싶다.

**김태환:**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휠체어 제작을 접할 때가 있었는데 이거구나 싶었다. 전공도 살리고 나눔의 정신도 함께할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다.

**정다예:** 봉사활동을 통해 관계와 소통의 중요함을 알았다. 앞으로 정담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열심히 배우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졸업 후에는 외국에 사는 국내 입양아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다.

**전자영:** 겨울방학 동안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다. 예전의 봉사활동이 포괄적이어서 진로가 막연했는데 내게 딱 맞는 옷을 이제 찾았다. 앞으로 아이들에게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파하는 일을 하고 싶다.

**안상범:** 정담회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인적 자산을 쌓고 싶다. 졸업 후에는 전공을 살려 건설 분야로 진출할 계획이다. 한계를 극복하고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삶을 건설하려고 한다.

#### 진행: 끝으로 후배 임원진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이윤하:** 적극적으로 참여해 소중한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 긍정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기 바란다.

**김태환:** 후배 임원진이 무얼 하건 힘껏 지지하겠다. 고민이 생기면 몸으로 부딪혀 해결하고, 그래도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달려오겠다.

**김대근:** 정담회 활동은 대학생들 중 가장 큰 보람이었다. 힘든 일도 있겠지만, 그것도 시행착오로 여기고 즐긴다면 큰 자산으로 돌아올 것이다. 후배들 파이팅! 🍀